

하이클래스군무원

2021. 7. 24.

군무원 시험 7급 국어 해설

— 문정호 교수 —

- 하이클래스 군무원 홈페이지: army.hiclasspass.com
- 문정호 교수 블로그: blog.naver.com/mjh721

© 하이클래스군무원

이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하이클래스군무원과 문정호 교수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군무원 국어(7급)

수험번호	성명
------	----

01.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강물에 V 떠내려가 V 버렸다.
- ② 그가 V 떠난 V 지 V 오래다.
- ③ 열 V 내지 V 스물
- ④ 십이 V 억 V 오십육 V 만 V 개

02.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솟염소 ② 강낭콩
- ③ 윗어른 ④ 유기장이

03. 다음 설명문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알타이어족에는 터키어 · 몽골어 · 만주어 · 통구스어 · 한국어 · 일본어 등의 언어가 속한다.

- ① 분류 ② 분석
- ③ 구분 ④ 정의

04. 다음 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얼마나 힘 드는 일인가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引力)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발자국 발자국이 보고 싶다
뒤꿈치에서 통겨 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내가 걸어온
길고 뻘뻘한 길이 보고 싶다

- ① 허구적 상상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의 옛 경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

05. 다음의 글들이 공히 추모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만 섬의 끓는 피여 열 말의 담력이여
벼르고 벼른 기상 서릿발이 시퍼렇다
별안간 벼락치듯 천지를 뒤흔드니
총탄이 쏟아지는데 늠름한 그대 모습이어
-한용운-

황해도 장사 두 눈을 부릅뜨고
나라 원수 죽였다네 염소 새끼 죽이듯이
안 죽고 살았다가 이 기쁜 소식 들을 줄이야
덩실덩실 춤노래 한 바탕, 국화조차 우쭐거리네
-김택영-

평생을 버르던 일 이제야 끝났구려
죽을 땅에서 살려는 건 장부가 아니오
비록 몸은 대만에 있어도 만방에 이름 떨쳤소
살아 백 살을 못 넘기는데 죽어 천년을 빛내는구려
-위안스카이(袁世凱)-

공은 삼한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니
살아 백세가 못되는데 죽어 천추에 빛나는구려
약한 나라 죄인이요 강국에서는 재상이라
그래 처지를 바꾸어 놓으니 이토도 죄인이구나
-쑤원(孫文)-

- ① 이순신 ② 권율
③ 김좌진 ④ 안중근

06. 다음 가사를 읊은 지은이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할사
동취(東州) 밤 계오 새와 북관명(北寬亭)의 올라오니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峯)이 험마면 뵈리로다

- ① 한양을 떠나는 슬픔
② 임금을 향한 충정
③ 여행길의 고달픔
④ 자연경관에 대한 감탄

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작가가 자연 속에 살면서 느낀 흥취를 밝고 맑은 분위기로 형상화한 가사이다. 양반 지식인이 자연 속에서 물아일체의 정감과 흥취를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흥취를 어떠한 문학 형식으로 표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문학의 자연친화적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① 상춘곡 ② 사미인곡
③ 관동별곡 ④ 도산십이곡

08. 다음 글의 ㉠~㉣ 중 내포하는 의미가 다른 것은?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存在)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 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 아닌 밤 둘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 ㉣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 -

- ① ㉠ ② ㉡
③ ㉢ ④ ㉣

09. 다음 중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할머니는 매일 트롯(trot)만 듣고 계신다.
- ② 사실 컨퍼런스(conference)의 진수는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것이다.
- ③ 기름기가 도는 노란 액체가 흰 글래스(glass)에 차오를 때의 투명한 소리를 상기했다.
- ④ 이로써 기업 고객에게 보다 최적화된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0. 속담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난한 집 족보 자랑하기다.
-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린다.
- ②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 남의 덕으로 분에 넘치는 행세를 한다.
- ③ 아쉬운 감 장수 유월부터 한다.
- 돈이 아쉬워서 물건답지 못한 것을 미리 내다 판다.
- ④ 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
- 강한 상대에게도 용기 있게 달려든다.

11.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그는 V 재산이 V 많을뿐더러 V 재능도 V 남에게 V 뒤질 V 것 V 없는 V 사람이다.
- ② 나는 V 매일 V 저녁 V 반신욕을 V 해서 V 불면증을 V 완 화하는데 V 효과를 V 보았다.
- ③ 지난 여름에 V 휩쓸고 V 지나간 V 전염병으로 V 이 V 지 역의 V 축산 V 농가가 V 큰 V 타격을 V 입었다.
- ④ 아버지는 V 우리들에게 V 유산은 커녕 V 빚만 V 잔뜩 V 남기고 V 떠나셨다.

1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또다시 생각이 빚먹거나 하면, 난들 이때까지 애쓴 보람이 무어겠소.
- ② 어른에게 함부로 그런 상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 ③ 그는 술자리에서 상관을 치살리며 환심을 사려 했다.
- ④ 그 문제를 데알고 덤비다가 망신만 당했다.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목월 시인이 1959년에 쓴 작품이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1달러였고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가난했다. 시인은 협소한 방에서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원고료를 벌기 위해 의무적으로 쓰는 글이다. 용변을 보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단칸방에 웅기종기 모여 잠을 자고 있는 식구들이 보인다. 그들의 잠은 깊고 평화롭지만 어딘지 서글퍼 보인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된 방에서 잠자는 어린것들의 발이 “포름쪽쪽” 하게 얼어 있다. 이 말에 아버지의 연민이 담겨 있다. 자신도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다. 가족들을 위해 생활에 몸을 굽히고 굴욕을 감내하는, 그러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드러내지 않았다. 자연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가난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박목월은 가난을 인간적 훈기로 감싸 안 으면서 연민의 어조를 통해 시인의 격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 ① 시인의 진심과 격조
- ② 자연의 시와 가난의 시
- ③ 가난이 주는 굴욕감
- ④ 연민과 평화의 정신

14. 다음 글의 ㉠~㉣에 대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일제 강점기 저항문학 작품의 수가 적고 저항의 ㉠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일제의 사상 ㉡ 통제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의 ㉢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작가의 의식을 끌어내서 작가가 하고 싶었으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내용의 ㉣ 단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검열의 틈을 뚫고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애쓴 일제 강점기 문학인들의 고민과 고충을 이해하고 작품 속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 ① ㉠ 강도－強道 ② ㉡ 통제－統制
③ ㉢ 행간－行間 ④ ㉣ 단서－端緒

15. 다음 시의 밑줄 친 말과 가장 근접한 시어로 적절한 것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의 <폭포> －

- ① 고매한 정신 ② 설 사이
③ 곧은 소리 ④ 물방울

16. 고사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전후 상황을 不問曲直하고 나를 보자마자 대뜸 먹살을 잡았다.
② 임궽정이 이야기를 나도 많이 듣긴 들었네만 道聽塗說을 준신할 수 있나?
③ 날이 갈수록 예의를 모르는 후배들이 점점 많아져 後生可畏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④ 덕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지 않고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면 자연히 面從腹背하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17. 단어의 발음이 잘못 표기된 것은?

- ① 태권도－[태편도]
② 훌이불－[훈니불]
③ 훌웃－[호돈]
④ 공권력－[공뀔력]

18.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 옳은 것은?

- ① 가평군－Gapyeong-goon
② 갈매봉－Galmaibong
③ 마천령－Macheollyeong
④ 백령도－Baeknyeongdo

19. 밑줄 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록에 개기된 서류를 붙인다.
→ 목록에 기재된 서류를 붙인다.
② 변경 사항을 주말하였다.
→ 변경 사항을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③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였다.
→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다.
④ 재산 관리인을 개입하는 처분을 하다.
→ 재산 관리인을 교체 임명하는 처분을 하다.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월의 넷물은 아!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누리 가운데 나고는 이 몸은 홀로 지내누나.
아으 동동다리

이월 보름에 아! 높이 켜 등불 같아라.
만인 비치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다리

삼월 나면서 편 아! 늦봄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자태를 지니고 나셨도다.
아으 동동다리

사월 아니 잊고 아! 오셨네, 꾀꼬리여.
무슨 일로 녹사(錄事)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아으 동동다리

오월 오일에 아! 수릿날 아침 약은
천 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고 받치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유월 보름에 아! 벼랑 가에 버린 빗 같아라.
돌보실 님을 잠시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 ① 궁중에서 연주된 가사로 국가의 번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② 월령체(月令體) 형식으로 각 달의 소재에 따라 다른 내용을 노래했다.
- ③ ‘동동(動動)’이라는 제목은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에서 따온 것이다.
- ④ 고려시대 구전되던 것을 조선시대에 한글로 기록했다.

21. 다음 소설의 내용으로 볼 때 제목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 후 그들은 자주 우리집에 드나들었다. 그 중엔 보위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들하고 천연덕스럽게 고향 얘기나 처자식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빠를 노려보면서 판사람같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소? 한다면 동무, 혹시 국방군에서 낙오한 게 아니요? 하면 간이 콩알만큼 오그라들었다. (중략) 마침내 보위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 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된다. 안돼. 이 노옵 너도 사람이냐? 이 노옵.”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가 어머니를 휙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 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냈다.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쏘았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기 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 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 ①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② 엄마의 상처가 가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엄마의 의지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 ④ 오빠와 엄마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인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는 미미한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시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①) 풍경을 서정적 수채화로 변형시킨다. 대상을 정확히 관찰한다는 점에서는 (②)인데, 서정의 윤기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 로맨티스트이다. 대상의 배면에서 전해오는 사물의 축축한 습기라든가 무정한 듯 펼쳐진 정경에서 배어나오는 생의 슬픔 같은 것을 즐겨 그려내는데, 생의 (③)에서 떠나 있는 듯한 그 애잔한 질감이 결국은 생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데 그의 특색이 있다. 그의 시집은 아련한 빛의 파문 속에 명멸하는 파스하면서 (④) 생의 영상들을 쌓아놓았다.

- ① 평범한 ② 모럴리스트
③ 현장 ④ 서글픈

23.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창고[창꼬]에 처박혀 있던 고문서 더미를 발견했다.
㉡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고 이렇게 홀대[홀때]를 하면 안 되지.
㉢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효:파]가 다를 수 있다.
㉣ 책꽂이에는 교과서[교:파서] 외에도 소설책과 시집이 뽁뽁이 꽂혀 있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24. 다음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 (가) 그 위계를 정하는 데 나이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와 나의 위계를 자기도 모르게 측정하게 된다.
(다) 그 위계를 따져서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라) 한국어에서 높임법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앞서 언급한 나이 외에도 직업, 지위, 친밀감, 공식성 등이 있다.
(마)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늘 상대와 나의 위계부터 따져야 한다.

- ① (라)－(마)－(가)－(다)－(나)
② (라)－(다)－(가)－(마)－(나)
③ (마)－(다)－(나)－(가)－(라)
④ (마)－(나)－(다)－(가)－(라)

25.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두 가지 의론이 맞서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② 퐁퐁 묶인 손이 퍼래지더니 통통 부어올랐다.
③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 물을 마셨다.
④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와 눈가에 잘다 랄게 주름이 잡혔다.

정답 및 해설

01 ④ [난이도 中]

풀이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또한 날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인 ‘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십이억오십육만V개’로 적어야 한다.

오답

- ① ‘떠내려가다’는 합성 용언이므로 ‘떠내려가’로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버렸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쓴다. ‘떠내려가V버렸다’는 본용언인 ‘떠내려가다’가 합성 용언이므로 ‘떠내려가V버렸다’로 띄어 써야만 한다.
- ② ‘떠난V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③ ‘내지(乃至)’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그 중간을 줄일 때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나, 흔히 ‘혹은, 또는’ 같은 뜻을 표시하므로, 접속 부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02 ③ [난이도 下]

풀이 ‘웃어른’(O)이 맞다. 위, 아래의 구별이 없을 때는 ‘웃-’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웃돈, 웃비, 웃웃’ 등이 있다.

03 ③ [난이도 中]

풀이 제시문은 ‘구분’에 의해 내용을 전개하였다.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는 내용 전개 방식이다. 알타이어족을 기준으로 각각의 언어를 나누었으므로 구분이 적절하다.

참고 분류(分類)와 구분(區分)

‘분류와 구분’은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으면서 분류하거나 가르면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분류’가 개별적인 것들의 공통성을 찾아 몇몇 종류로 묶어가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가지로 갈라 나누어 보는 것이다.

04 ② [난이도 中]

풀이 김기택의 시 <우주인>이다. 1연에서 화자는 힘들게 살아왔 으면서도 기댈 무게가 없고 삶의 거리도 없다며 삶의 어려움을 ‘없다’를 반복하여 표현했다. 2연에서는 ‘모른다’를 반복하여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표현했다. 3연에서는 ‘싶다’를 반복하여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소망을 표현했다. 각각 ‘없다’, ‘모른다’, ‘싶다’의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 ① 1연에서 ‘허공에 발이 푹푹 빠진다’, 2연에서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등의 표현은 허구적 상상의 표현이다. 두 표현 모두 화자의 힘든 삶을 나타낸다.

- ③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옛 경험을 돌아보며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 ④ 화자가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연에서 화자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다.

참고 김기택, <우주인>

- 갈래: 자유시
- 성격: 상징적, 관념적
- 주제: 자신의 무기력한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을 극복할 것을 소망함.
- 특징: 섬세한 관찰과 묘사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우주인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 해설: 화자는 일상에 매몰된 무감각한 존재이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한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뻘뻘한 길이었음을 알고 주체적 삶을 소망한다. 자신의 발자국이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05 ④ [난이도 中]

풀이 ‘이토(히로부미 伊藤博文)’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모두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글이다. 글쓴이들은 모두 1900년대 초반의 인물로 안중근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다. 참고로 첫 번째 글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해 한용운이 지은 ‘안해주(安海州)’라는 제목의 한시이다.

참고 한용운, <안해주(安海州)>

萬斛熱血斗斗膽 (만국열혈십두담)
淬盡一劍霜有韜 (쉬진일일상유도)
霹靂忽破夜寂莫 (벽력홀파야적막)
鐵花亂飛秋色高 (철화난비추색고)

만성의 끓는 피여! 열 말의 담력이어!
벼르고 벼른 기상 서릿발이 시퍼렇다.
별안간 벼락치듯 천지를 뒤흔드니
총탄이 쏟아지는데 늠름한 그대 모습이어

06 ② [난이도 中]

풀이 송강 정철의 가사 문학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일부이다. 작가는 강원도 지역을 지나며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를 생각한다. 소양강 물은 결국 한양으로 흘러갈 것이고 한양에는 임금이 계시므로, 이 부분은 작가가 소양강을 보며 임금을 생각하는 연군지정(戀君之情)이 나타나는 구절이다.

오답

- ① 작가가 한양을 떠나고 있는 있으나 슬픔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여행길은 맞지만 고달픔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자연경관을 보고는 있으나 감탄하는 부분은 아니다.

참고 제시문 해석

소양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간다는 말이고?
임금님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가 근심이 많기도 많구나.
철원의 하룻밤을 겨우 새워 복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높은 봉이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07 ① [난이도 中]

풀이 정곡인의 가사 작품 <상춘곡(賞春曲)>을 설명한 글이다.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은 퇴계 이황의 시조이고, <사미인곡(思美人曲)>은 송강 정철의 가사 작품이다. 또한 <사미인곡>은 자연의 흥취와는 관련이 없고 연군지정(戀君之情)을 내용으로 삼은 가사 작품이다. <관동별곡(關東別曲)>에는 일부 내용에서 자연의 흥취와 물아일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한국 문학의 자연 친화적 전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08 ③ [난이도 中]

풀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시이다. 시에서 대상인 ‘너’이자 ‘신부’는 시적 자아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의 본질을 상징한다. 그러나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 ‘이름도 없이’, ‘얼굴을 가리운’ 존재여서 본질을 탐구할 수 없는 미지(未知)의 대상이다. ㉠, ㉡, ㉢은 존재를 알 수 없는 대상인 ‘너’를 내포하는 시어이다. 그러나 ㉣은 ‘나의 울음’이 ‘돌개바람’이 된 것이므로 시적 화자와 관련된 시어이다.

참고 김춘수, <꽃을 위한 서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관념적, 철학적, 주지적
- 심상: 비유적, 상징적 심상
- 제재: 꽃
- 주제: 꽃(사물)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의미 추구
- 해설: 1연은 사물의 본질을 모르는 시적 화자 자신을 ‘위험한 짐승’으로 표현하여 무지에 대한 자각을 드러낸다. 알려고 하면 대상은 더욱 숨어 버릴 뿐이다. 그래서 꽃 역시 화자의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3연의 ‘무명(無名)의 어둠’이란 이름이 없는 상태, 즉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화자는 이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 불을 밝히지만 화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다. 4연에서 화자는 존재의 본질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한 노력과 슬픔이 소중하고 고귀한 빛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잠시 침묵의 시간을 거친 뒤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면서 시상이 마무리된다.

09 ④ [난이도 下]

풀이 외래어 표기법 제2항에 따라 외래어 표기는 1음운=1기호 원칙으로 적는다. 하지만 외래어 ‘o’를 모두 ‘o’로 적지는 않는다. 가령 ‘콤플렉스, 콘텐츠, 콘셉트, 콘서트’는 ‘o’로 적고, ‘설루션, 컴퓨터, 리모컨, 컨트롤, 에어컨’은 ‘n’로 적는다.

오답

① 트로트(○), ② 콘퍼런스(○), ③ 글라스(○)

10 ④ [난이도 中]

풀이 ‘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는 용기와 관련이 없다. 무모한 행동이나 쓸데없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 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 상대가 되지도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건드려도 꿈쩍도 아니 할 대상에게 무모하게 시비를 걸며 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공연한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② [난이도 上]

풀이 ‘완화하는V데’(○)로 띄어 써야 한다. 여기서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데나 쓴다.

오답

- ① ‘많을뿐더러’의 ‘-ㄴ뿐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또한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③ ‘지난여름’은 붙여 쓰는 합성어이다. 참고로 ‘지난봄, 지난가을, 지난겨울’도 모두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지난날, 지난달, 지난밤, 지난번, 지난사건’ 등이 모두 합성어이다. ‘이V지역의’의 ‘이’는 관형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④ ‘은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12 ① [난이도 上]

풀이 ‘빚먹다’는 물건을 벨 때 칼이나 톱이 먹줄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비뚤어지게 잘못 들어갔을 때 쓰는 말이다. ‘빚먹다’의 사전적 뜻은 물건을 벨 때만 쓰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단어는 상황에 따라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생각이 비뚤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쓴다고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①에서 ‘생각이 빚먹다’는 표현은 ‘생각을 잘못하다’ 정도로 의미 확장이 가능하다.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베다’의 뜻은 불가능하다.

오답

- ② 상없다: 보통의 이치에서 벗어나 막되고 상스럽다.
- ③ 치살리다: 지나치게 치켜세우다.
- ④ 데알다: 자세히 모르고 대강 또는 반쯤만 알다.

13 ①

[난이도 下]

풀이 박목월의 시집 <<난(蘭). 기타(其他)>>에 수록된 시 <층층계>를 평론한 글이다. 가난한 삶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하는 시인의 태도와 인간적인 연민의 격조를 설명하고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를 알 수 있다.

참고 박목월, <층층계>

적산가옥(敵産家屋) 구석에 짊어진 층층계...

그 이층(二層)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써도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空虛感).

이것은 내일(來日)이면
지폐(紙幣)가 된다.

어느 것은 어린것의 공납금(公納金).
어느 것은 가난한 서양대(柴糧代).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用錢).

밤 한 시, 혹은
두 시. 용변(用便)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單間房).

온 가족(家族)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의
저 무심(無心)한 평안(平安)함.

아아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이 층(二層)으로 올라간다.
[사다다리를 밟고 원고지(原稿紙) 위에서
곡예사(曲藝師)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生活)의 막다른 골목끝에 놓인
이 짊어진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설픈 '아버지'라는 것이다.

나의 어린것들은
왜(倭)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 방에서
날무처럼 포름쪽쪽 얼어있구나.

14 ①

[난이도 上]

풀이 '센 정도'를 뜻하는 말은 '강도(強度)'이다.

- 강도(强 강할 강, 度 법도 도): 센 정도.

오답

- ② 통제(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권력으로 언론·경제 활동 따위에 제한을 가하는 일.
- ③ 행간(行 다닐 행, 間 사이 간): 쓰거나 인쇄한 글의 줄과 줄 사이. 또는 행과 행 사이. 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그 글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숨은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단서(端 바를 단, 緒 실마리 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의 첫 부분. 어떤 일의 시초.

15 ②

[난이도 中]

풀이 '고매한 정신'은 바로 일체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정신적 지향을 가리킨다. 작자는 이런 정신적 지향이 폭포의 낙하처럼 잠시도 '쉴 사이없이'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쉴 사이'는 저항과 참여를 방해하는 '나타', '안정'과 같이 현실에 타협하려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나머지 '고매한 정신', '곧은 소리', '물방울'은 부정적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강한 의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시어이다.

참고 김수영, <폭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 성격: 주지적. 관념적. 상징적. 참여적. 산문적
- 심상: 역동적 심상. 청각적 심상
- 어조: 힘차고 격정적인 어조
- 제재: 폭포. 현실의 부정적 모순과 인간의 나태한 심성
- 주제: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의 추구. 부정적 사회 현실과 일상적 삶의 나태성에 대한 자각
- 해설: 이 시는 '폭포'의 낙하 운동과 굉음(轟音)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정신이 지향해야 할 어떤 절대적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폭포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내려 스스로를 부정함으로써 '곧은 소리'를 빚어 낸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을 뚫고 멀리 퍼져 또 다른 '곧은 소리'를 불러 낸다. 이처럼 온몸을 내던져 '곧은 소리'를 빚어 내는 폭포의 운동은 곧 시대 현실에 맞선 정신과 양심의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심과 지성의 행위에는 일체의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나 망설임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의 세계가 아니라 절대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이처럼 어떤 절대적 높이에서 요구되는 양심과 지성의 운동, 즉 절대적 자유를 향해 움직여 가는 양심과 지성의 운동을 상징한다.

16 ③

[난이도 中]

풀이 '후생가외(後生可畏)'는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앞으로 선배보다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예의와 관련이 없다.

- 후생가외(後 뒤 후, 生 날 생, 可 옳을 가, 畏 두려워할 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

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논어>의 <자한편(子罕篇)>에 나오는 말이다.

- ① 불문곡직(不 아닐 불, 問 물을 문, 曲 굽을 곡, 直 곧을 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 ② 도청도설(道 길 도, 聽 들을 청, 塗 진흙 도, 說 말씀 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논어>의 <양화편(陽貨篇)>에 나오는 말이다.
- ④ 면중복배(面 얼굴 면, 從 좇을 중, 腹 배 복, 背 등 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17 ④ [난이도 下]

풀이 ‘공권력’은 표준발음법 제20항에서 밝힌 유음화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다. [공권녁]이 올바른 발음이다.

예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례],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오답

- ② ‘홀이불’의 경우 받침이 ‘ㄷ’이고 ‘ㅣ’모음이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치불]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이때의 ‘ㅣ’모음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홀이불’은 접두사 ‘홀’에 ‘이불’이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과는 무관하다.
- ④ ‘홀웃’에서 ‘웃’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홀’의 받침 ‘ㄷ’을 대표음인 [ㄷ]으로 바꿔 발음한다.

18 ③ [난이도 下]

풀이 지명 ‘마천령(摩天嶺)’은 표준 발음인 [마철령]에 따라 ‘Macheollyeong’으로 적는다. 로마자 표기법에서 ‘ㄹ’은 ‘ll’로 쓴다.(제2장 제2항의 [붙임2] 참조)

오답

- 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Gapyeong-gun’(○)
- ② ‘Galmaebong’(○)
- ④ ‘백령도(白翎島)’는 섬이기 때문에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다. 또한 표준 발음인 [뱅녕도]에 따라 적는다. ‘Baengnyeongdo’(○)

19 ② [난이도 上]

풀이 ‘주말하다’는 ‘먹을 문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우다.’는 뜻이다. ‘변경 사항을 붓으로 지웠다.’로 고쳐야 쉬운 표현이 된다.

- 주말(朱抹)하다: 붉은 먹을 문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우다.
- 주말(朱 붉을 주, 抹 바를 말): 붉은 먹을 문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움.

오답

- ① 계기(揭 들 게, 記 기록할 기): 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 두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함. 또는 그런 기록.
 - 기재(記 기록할 기, 載 실을 재):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림.
- ③ 계리(計 회할 계, 理 다스릴 리): 계산하여 정리함.
 - 회계(會 모임 회, 計 회할 계):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함.
- ④ 개임(改 고칠 개, 任 맡길 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함.
 - 교체(交 사귄 교, 替 바꿀 체):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신함.
 - 임명(任 맡길 임, 命 목숨 명):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20 ① [난이도 中]

풀이 제시된 작품은 고려속요 중 하나인 <동동(動動)>이다. 이 작품은 직접적으로는 임을 송축(頌祝)하고 임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제시문에 수록되지 않은 1연인 서사에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국가의 번영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고려사 악지에 수록된 ‘多有頌禱之詞(다유송도지사)’를 참고로 <동동>에는 기쁜 일을 기리어 축하하는 ‘송축’의 뜻이 있고, 이 경우 1연은 임금 앞에서 부른 것으로 해석되며 이때 작품 속의 임은 ‘임금’이다. 그렇지만 임금을 예찬한 것과 국가의 번영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 ② 이 작품은 전체 13연으로 구성된 월령체 노래이다. 월별로 그 달의 자연 경물이나 행사에 남녀 간의 애정을 관련지어 읊은 달거리 노래이다.
- ③ ‘동동(動動)’은 후렴구, 북소리 의성어이다. 후렴구를 제목으로 삼았다.
- ④ 고려속요는 고려 시대의 하층 문화와 깊은 관련을 지니면서 민요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던 노래가 조선 시대가 되어 궁중에서 불리기 위해 한글로 기록되었다. 고려속요가 궁중 음악이 되면서 상층 문화로 변모되고 속악 정재의 공연 방식에 따라 개편되었다.

21 ② [난이도 上]

풀이 박완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엄마의 말뚝>은 세 편으로 구성된 단편 연작이다. 특히 제시문인 <엄마의 말뚝 2>는 이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쟁과 오빠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엄마는 전쟁의 와중에 오빠의 비극적 죽음을 겪게 되고, 오빠의 죽음을 가슴에 말뚝처럼 박고 살아간다. 이 문제의 정답으로 ①과 ③이 될 수 있다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정답은 분명히 ②가 되어야 한다. 제시문의 이후 내용을 다룬 <엄마의 말뚝 3>은 오빠의 죽음이 엄마의 가슴에 깊

게 뿌리를 내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오빠가 죽게 되는 내용은 엄마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①이나 엄마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음을 지적한 ③은 정답과 관련이 없다.

22 ② [난이도 中]

풀이 박형준 시인의 시집 《춤》을 평론한 이승원의 평론집 내용의 일부이다. ‘모럴리스트(moralist)’ 16세기부터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인간성과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탐구하여 이것을 수필이나 단편적인 글로 표현한 문필가를 이르는 말이다. 대상을 정확히 관찰한다는 설명이 앞에 있으므로 ‘모럴리스트’는 적절하지 않다. ‘대상을 정확히 관찰한다’는 내용이 앞에 있으므로 ②에는 ‘리얼리스트’가 적절하다. 원문에도 ‘리얼리스트’로 기록되어 있다.

- 리얼리스트(realist): 사실주의나 현실주의를 따르는 사람.

23 ④ [난이도 中]

풀이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인 ‘창고(倉庫)’는 [창고]로 발음한다. 된소리 발음인 [창꼬](×)는 잘못된 발음이다.

오답

㉠ 홀대(忽待)[홀때], ㉡ 효과(效果)[효:과/효:파], ㉢ 교과서(教科書)[교:과서/교:과서]

참고 한자어의 사잇소리에 의한 된소리 발음

한자어는 사잇소리에 의해 된소리 발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필연적이지 않고 수의적이다. 때로는 된소리 발음이 일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표준 발음이 되기도 한다. 2017년 3/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사항을 정리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예 안간힘[안간힘/안간힘], 인기척[인기척/인기척], 불법(不法)[불법/불법], 효과[효:과/효:파], 관건[관건/관건], 분수[분수/분수], 반값[반:값/반:값], 점수[점수/점수], 함수[함:수/함:수]

24 ③ [난이도 中]

풀이 (라)는 ‘앞서 언급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작 문장이 될 수 없다. (마)에서 위계를 언급했으므로 (마)가 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마)는 상대와 위계를 따져 말하는 한국어의 특징을 언급한 화제 제시 문장이다. (다)는 위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 상황을 언급했으므로 (마)의 뒤에 이어져야 한다. (나)는 (다)의 결과이다. (가)는 내용을 전환하여 위계를 정하는 기준인 나이를 언급했다. (라)는 (가)의 내용에 이어서 나이 외에 위계를 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했다.

25 ①

[난이도 中]

풀이 ‘議論’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의 뜻인 ‘의론(議論)’과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의 뜻인 ‘의논(議論)’이 모두 표준어이다.(2015년 복수 표준어 추가 중에서 현재 표준어와 뜻이 다른 표준어로 인정한 별도 표준어) ①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의론’이 올바른 표현이다.

오답

② ‘퍼렇게 되다’의 뜻인 동사는 ‘퍼레지다’(○)이고, ‘파랗게 되다’의 뜻인 동사는 ‘파래지다’(○)이다. ‘퍼레’와 ‘파래’를 모음 조화에 맞게 써야 한다. ‘퍼래지다’(×)나 ‘파레지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③ ‘그리하다’의 준말은 ‘그러다’(○)이고, ‘그리하고’가 줄어든 말은 ‘그러고’(○)이다. ‘그러고’로 고쳐야 한다. 흔히 ‘그러고 나서’를 ‘그리고 나서’(×)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하다’의 뜻인 문장이므로 ‘그러고’ 뒤에 보조 동사 ‘나다’를 써서 ‘-고 나다’의 형태인 ‘그러고 나서’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참고로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①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그러고 나서’의 형태는 접속 부사 ‘그리고’ 뒤에는 ‘나다’와 같은 보조 동사가 올 수 없다.

④ ‘꽤 잘다’ 또는 ‘아주 자질구레하다’가 뜻인 말은 ‘잔다랗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따라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반진고리(바느질~), 사흘날(사흘~), 삼진날(삼질~), 선달(설~), 손가락(술~), 이틀날(이틀~), 잔주름(잘~), 푼소(풀~), 선부르다(설~), 잔다듬다(잘~), 잔다랗다(잘~)

2021.7.24. 7급 총평

	유형	2020	2021	계	비율
1	문학	5	8	13	26%
2	문법	4		4	8%
3	비문학	4	3	7	14%
4	어문 규정	3	8	11	22%
5	어휘	1	3	4	8%
6	관용어, 속담	1	1	2	4%
7	한자어, 한자	4	1	5	10%
8	한자 성어		1	1	2%
9	고전문법				
10	어법, 생활 국어	3		3	6%
계		25	25	50	100%

2020년에 처음 공개된 군무원 7급 국어 문제이고 이제 두 번째 해가 되었다. 그동안 군무원 9급 국어 문제는 복원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군무원 7급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처음 접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하이클래스군무원 학원>에서는 군무원 7급의 유형을 충분히 설명했고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굳이 어려운 부분을 꼽자면 한자(한자어)와 관련된 부분인데, 군무원 국어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한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 확실한 것은 7급 군무원 국어를 대비하려면 한자 공부에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한자 공부, 한자어 공부, 한자성어 공부 등 한자와 관련된 공부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문법 문제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문법 공부는 9급이나 7급 모두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학과 어문규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9급은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문제를 출제했지만 7급은 문학과 어문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부분은 작년과는 다른 현상이다. 어문규정은 각 항목에 제시된 평이한 사례로 출제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지식형 문제와 감상형 문제가 모두 출제되어서, 평소 공무원 문학 학습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특히 2020년에는 7급 국어에서 지식형 문학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상춘곡>을 찾는 7번 문제와 20번 <동동>에서 일부 출제를 했다. 현대시에서는 김수영의 <폭포>와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가 모두 감상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정답을 알 수 있었다. 평소 시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관동별곡>은 다시 출제되었다. 과거의 기출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이다.

주목할 문제는 12번 단어의 사용, 14번 한자어, 19번 한자어 순화, 21번 긴 지문의 소설이다. 어렵거나 오랜 시간 읽어야 하는 고통이 따르는 문제들이다. 해설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으니 반드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특히 군무원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9번 한자어 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2019년까지 군무원 국어 7급도 9급과 같이 어문규정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2020년에는 어문규정에서 문제를 적게 출제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많이 출제했다. 특히 표준발음과 띄어쓰기는 각각 2문제씩 출제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공무원 시험은 무엇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고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주었다. 2020년부터 '필기 50% + 면접 50%'가 최종합격이 되었으므로 필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하이클래스군무원 학원>을 믿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